

다의어의 형성원리와 그 분석

박사 부교수 박길만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조선어 어휘와 표현의 풍부성은 그 량이 많은데도 있지만 그것이 담고있는 의미내용의 다양성, 섬세성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조선어 어휘와 표현의 풍부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는데서 다의어와 관련한 어휘의미론적문제를 해명하는것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어휘의미 특히 동사체계내에서의 다의성문제를 제기하고 다의어와 다의어의 형성에 작용하는 원리적내용을 밝힘으로써 언어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정확하게 하며 컴퓨터에 의한 자연언어의 의미처리, 사전의 작성 및 출판사업 그리고 조선어교육을 비롯한 일련의 언어연구와 실천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2. 본론

2.1. 선행연구정형

지난 시기 어휘의미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였다.

《우리 말에서 빗갈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의미주석을 위하여》(《조선어문》 1958)에서는 빗갈형용사의 의미가 매우 섬세하고 다양한것은 형태부의 어음교체와 뒤붙이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밝히고 기본적인의미로서 5가지의 빗갈형용사의 주석을 간접서술의 방법으로 진행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실례로 《붉다, 푸르다, 누르다, 희다, 검다》의 의미규정을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붉다: 피나 익은 고추의 빗갈과 같다
- 푸르다: 풀이나 맑은 하늘의 빗갈과 같다
- 누르다: 금이나 호박꽃의 빗갈과 같다
- 희다: 눈이나 박꽃의 빗갈과 같다
- 검다: 숯이나 먹의 빗갈과 같다

이 기본적인의미로부터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는 실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푸른 리념을 함빡 걷어안고
빛나는 민주미래를 받들어

자라나는 인민의 바위—
모란봉을 본다

여기에서 보면 의미분화는 우선 빛갈에 대한 감정이 서로 다르게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형성되었을 때 새로운 의미로 떨어져나가면서 생기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푸른 리념》, 《푸른 꿈》, 《검은 배속》, 《검은 눈》과 같이 《푸르다》와 《검다》는 서로 다른 단어와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의미분화는 또한 어떤 빛갈과 관련된 다른 속성을 그 빛갈로 표현하면서 일어나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푸른 보리》, 《누른 보리》라는 표현을 통하여 보리가 익지 않은것과 익은것을 구별하는것이다.

의미분화는 또한 외국어의 어휘를 차용하면서 이루어지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단심》으로부터 《붉은 마음》이 생겨나며 로씨야어의 《красная армия》로부터 《붉은 군대》가 생겨난다는것이다.

이것은 어휘의 의미분화에 대하여 비교적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한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어휘의 의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그치고 그 분화의 결과에 다의어가 생겨나게 된다는데 대하여서까지는 전개하지 못하였다.

《단어의 다의성에 대하여》(《조선어문》 1959년 4호)에서는 단어의 다의성과 동음이의어를 구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기본적인미와 부차적인미로 구분하였으며 단어의 의미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부차적인미를 두개의 류형으로 가르고 기본적인미와 부차적인미의 호상관계에 기초하여 단어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히었다.

여기에서 제기한 독특한 견해는 우선 다의성을 떠는 동사의 부차적인미들은 절대다수가 성구론적으로 결합된 의미라는데 대하여 동사 《보다》와 《놓다》를 놓고 설명한것이다.

- 기회를 보다, 눈치를 보다, 동정을 보다, 거동을 보다
- 수를 놓다, 무늬를 놓다, 수박을 놓다, 값을 놓다, 금을 놓다

또한 조선어의 동사에서 부차적인미가 일정한 문맥에서 다시 부차적인미를 파생시키고 기본적인미와 같이 평행선으로 부차적인미를 파생시켜나가는데 이때 새로 형성된 중심적인미는 최초의 기본적인미와 떨어져서 자유로워지면서 기본적인미와 병행하여 발전할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단어의 다의성과 동음이의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의미의 구조적측면에 특히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한것이다.

그러면서 동사 《혈다》의 두개의 의미중심을 구조—의미론적원칙에 따라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 혈다(타) ① 담을 혈다, 집을 혈다. ② 남을 혈다, 명예를 혈다
- 혈다(자) ① 책이 혈다, 차가 혈다. ② 입이 혈다, 뺨이 혈다

실례에서 타동사로서의 동사 《혈다》는 구조—의미론적으로 보면 《—을 혈다》의 구조를 갖추고있으며 자동사로서의 동사 《혈다》는 《—이 혈다》의 구조를 갖추고있다. 따라서 이 두 동

사는 결국 소리는 같고 뜻이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로 볼수 있다는것이다.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에 따르는 문법적특성에 따라 해당 동사를 동음이의어로 본 필자의 견해는 일련의 타당성이 있으나 중요하게는 타동사인가 자동사인가 하는것보다는 두 단어가 가지는 개개의 총체적의미가 《홀어지게 하다》와 《낡다》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적차이에 있다고 보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이 소론문에서는 부차적의미와 기본적의미의 관계를 통하여 다의성과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을 제기하고 두개의 중심적의미가 병행하여 발전하는 경우의 구조-의미적측면에서 그 기준을 찾은것은 좋은것이지만 단어의 의미갈래들이 의미적련관을 가지는가 아니면 가지지 않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밝히지 않은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즉 의미적련관이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아서 동음이의어로 설정한 이 견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다.

《단어의 의미분화와 주석사전에서 의미분석》(《조선어학》 1961년 4호)에서는 의미를 기본적의미와 파생적의미, 시원적의미와 전의적의미, 자유로운 의미와 제약된 의미, 정착적의미와 일시적의미, 통속적의미와 학술적의미, 구체적의미와 추상적의미, 동성적의미와 표현적의미로 분류하였다.

이 소론문에서 필자는 《손》이 《희다》와 결합하는 경우 《손》의 표징가운데서 색깔이 문제이고 《시리다》와 결합하는 경우는 《손》의 감각, 추위와 관련되는것이며 《놀리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운동기능과 관련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단어들의 결합관계속에서 의미들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인력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 소론문에서 단어의미의 파생관계를 다른 단어와의 결합속에서 논의한것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속에서 의미가 변하는 현상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더 전개하지 못하였다.

《현대조선어 상징어의 의미론적특성》(《조선어학》 1963년 3호)에서는 다의적계렬속에서 표현되는 상징어의 의미적특징을 형태, 빛갈, 운동의 성격 등에서 류사한 점에 근거하여 은유적의미표현이 있게 된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 나무가지가 건들건들 흔들리다/ 건들건들하면서 건달을 부리다
- 양산대를 빙글빙글 돌리다/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하다

여기서는 다의적의미계렬을 상징어에 국한하여 취급하였다.

《우리 말 단어의 다의성과 그 발생요인》(《언어학론문집》 제5권)에서는 단어의 다의성을 한 단어가 여러개의 뜻을 가지는것으로 규정하고 본의와 전의, 뜻빛갈과 형상적뜻으로 갈라보았다.

이 소론문에서는 다의어에서 의미적갈래에 따라 동의어가 생기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그 실례문을 제기하였다.

- 자빠지다:
- 자빠지다/ 넘어지다, 거꾸러지다
- 자빠지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 자빠지다/ 망하다, 거꾸러지다

자빠지다/ 죽다, 뒹지다

자빠지다/ 눕다

자빠지다/ 물러나다

이 소론문에서는 다의적인 뜻이 발생하는 요인을 첫째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작용에 있다는것을 강조하고 둘째로, 시대와 사회발전에 따라 다의성이 커진다는데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선어의미론연구》(료녕민족출판사, 1996.)에서는 다의성과 관련한 단어의 의미구조를 서술하면서 다의성에 작용하는 요소를 단어의미의 자의성, 우연성, 의미역과 련상군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밖에도 조선어의 다의어에 대하여서는 《조선어의미구조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2(2003).), 《조선어어휘의미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 《어휘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7(2008).)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교과서, 참고서들에서 논의되었다.

기본적인 서술내용들을 보면 다의어는 한개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련관되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이외의 여러 논문들에서는 다의어의 개념을 주고 《다의어》와 《다의성》, 《다의적인 뜻》이라는 학술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것을 강조하고 《동음이의어》를 다의어와 달리 둘 또는 그이상의 여러 단어들사이의 관계와 관련한 의미적인 어휘갈래라고 정의하면서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주었으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은 《완전한 의미적 통일체》를 이루고있는가 아닌가, 《일관된 문맥》이 흐르는가 아닌가 하는데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조선어의 다의어에 대한 선행한 연구정형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의 문맥, 일관된 문맥》의 견해, 《뜻의 자립성》의 견해를 제기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하나의 문맥, 일관된 문맥》 그리고 《뜻의 자립성》의 객관적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2.2. 문제의 제기

사전에 오른 30여만개이상의 단어들가운데서 다의성을 띠는 다의어들에 대하여 모두 논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조선어 동사체계내의 동사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 근거는 우선 언어생활에서 활용되는 동사의 수가 많은것과 관련된다.

동사는 대상과 현상의 움직임 즉 행위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실례를 들어 단어 《가다》가 사용되는 문장 《나는 학교로 가다, 승용차가 가다, 불이 가다, 세월이 가다, 금이 가다, 정이 가다, 소식이 가다》등에서와 같이 《나, 승용차, 불, 세월, 금, 정, 소식》이라는 대상이 움직이는것을 나타내는것이다.

그 근거는 또한 조선어 동사체계내에 대부분의 단어들이 모두 다의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5(2006)~주체96(2007).)에 올린

올림말들 가운데 동사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의어들이다.

일반적으로 명사들은 동사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뜻구성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명사에도 다의어는 있다. 실례를 들어 명사 《바람》과 같은 다의어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명사에 비하여 동사들에 다의어들이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

그 근거는 또한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능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면서 단어의 다의적내용이 풍부해지는 현상이 동사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실례를 들어 동사 《고르다》의 뜻풀이의 력사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동사 《고르다¹》에 대하여 《조선말사전》(1960)과 《현대조선말사전》(1981)에서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것을 찾아서 따로 갈라내다.》라고 뜻풀이를 하였는데 《조선말대사전》(1992)과 《조선말사전》(주체93(2004))에서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것을 따로 갈라내다.》와 《이것저것 신중하게 헤아려 찾아내다.》로 뜻풀이를 하였다. 또한 《고르다²》에 대해서는 《조선말사전》(1960)과 《현대조선말사전》(1981)에서는 《높고 낮고 하여 들쭉날쭉하게 울퉁불퉁한것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평탄하게 하다.》와 《붓같은것에 먹이나 색깔을 고루 묻혀 가다듬다.》로 뜻풀이를 하였으나 《조선말대사전》(1992)과 《조선말사전》(주체93(2004))에서는 한개의 뜻이 더 보충되었다. 즉 우의 두개의 뜻풀이와 함께 세번째의 뜻으로서 《(목소리 같은것을) 가다듬어 고르게 하다.》라는 뜻을 더 첨부하였다.

이러한 론거로 하여 이 글에서는 동사체계내에서 다의어문제를 깊이 따져볼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자면 첫째로, 다의어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보다 구체화하여 밝혀야 하며 둘째로, 현대 조선어의 동사체계에서 나타나는 다의어의 형성의 원리적인 측면을 현대의미론의 관점에서 밝혀야 하며 셋째로, 조선어 동사체계내에서의 다의어의 분석을 통하여 다의어의 형성의 원리에 대한 보다 명백한 리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다의어와 다의어형성요인

2.3.1. 다의어에 대한 일반적리해

한 단어가 일정한 시기에 여러개의 의미를 가지는 특성을 다의성이라고 한다. 다의어란 다의성을 가진 단어나 단어결합을 말한다.

무엇보다먼저 다의어는 통시대적으로가 아니라 공시대적인 시점에서의 언어행위속에서 밝혀야 한다. 물론 단어의 뜻은 일정한 사회력사적인 변화발전속에서 발전풍부화되기에 문에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연구하는것을 무시하라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력사발전의 견지에서도 연구를 하되 다의어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 의미가 해당 시대에 쓰이고있는가 아니면 쓰이지 않는가 하는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해당 시대에는 동음이의어로서 인정을 받고있지만 력사적으로는 그 의미들의 련관관계가 존재하는 다의어로서 평가받을수 있는 단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다의어를 통시대적으로 보면 해당 시대의 다의어에 대한 리해에서 혼잡성을 조성하게 된다.

단어의 뜻에는 본뜻과 갈라진뜻이 있다. 처음에 생겨난 뜻을 본뜻이라고 한다.

본뜻에 기초하여 갈라진뜻이 생기기도 하고 이 갈라진뜻에 기초하여 또다시 다른 갈라진

뜻이 생길수도 있다. 이 과정에 본뜻은 존재할수도 있고 없어질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있다고 하여 다의어로 되는것은 아니다.

다의어는 같은 시기에 그 뜻들이 인민들속에서 인식되어 리용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갈라보아야 한다. 같은 시기에 사회성원들속에서 한 단어의 여러가지 뜻이 서로 련관이 존재한다는 공통적인 리해를 하면서 사용될 때 그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한 단어에 여러개의 뜻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시기에 인민대중속에 리해되어 쓰이는 뜻이 하나이면 그 단어는 그 시기의 다의어로가 아니라 단의어로 되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망나니》는 원래 《봉건사회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죄인의 목을 자르는 일을 말아보는자》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질서를 어기면서 말이나 행동을 막되게 하는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사실 단어 《망나니》는 사전상에서는 다의어로 인정을 하고 올림말로 올리고 그 뜻풀이도 하였지만 결국 본래의 뜻은 없어지고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질서를 어기면서 말이나 행동을 막되게 하는자》라는 하나의 뜻만 쓰이기때문에 다의어로 볼것이 아니라 단의어로 보아야 하며 《사형을 집행할 때 죄인의 목을 자르는 일을 말아보는자》라는 의미는 단어 《망나니》의 지나간 력사적시기의 의미로 보아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나간 력사적시기의 의미란 단어자체가 사라져서 사용되지 않는 고어와는 달리 그 말소리자체는 그대로 남아서 사용되지만 그 말소리가 나타내던 의미가 사라져서 사용되지 않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다의어는 한 단어의 여러 뜻들사이의 련관성속에서 밝혀야 한다.

다의어는 우선 대상, 현상에 대한 독자적인 뜻들이 있어야 한다.

실례를 들어 《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3(2004).)에서는 《고르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하였다.

○ 고르다(동)(타)

① 여럿가운데서 어떤것을 따로 갈라낸다.

쌀에서 벼알을 고르다.

② (말이나 생각을) 이것저것 신중하게 헤아려 찾아낸다.

생각을 고르다.

①에서 《고르다》는 여러 대상가운데서 어떤것을 따로 갈라낸다는 의미로서 《북데기속에서 벼알을 고르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다.》 등의 의미로 쓰이지만 ②에서 《고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영남이를 구원할 방도를 고르다.》, 《오늘계획을 300%로 수행한 그 동무를 축하해줄 말을 고르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이 두개의 의미는 사람들이 문맥속에서가 아니라 한개의 문장속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수 있다. 즉 두개의 의미가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따라서 《고르다》는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오직 문맥속에서만이 그 뜻이 리해되는 경우가 있다.

내 나라 그 어디 가나 피어난
행복의 웃음꽃, 기쁨의 웃음꽃
수령님과 장군님 가꾸어오신
아름다운 꽃 행복의 꽃을

더 활짝 피워주신 **김정은**동지

(《청년문학》 주체101(2012)년 8호, 시 《내 나라의 꽃》중에서)

여기에서 《꽃》은 자라나는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 《꽃》의 의미는 이 시의 문맥을 떠나서는 그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꽃》이라고 하면 생신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행복의 웃음꽃, 기쁨의 웃음꽃》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진짜의미를 잘 알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수령님과 장군님 가꾸어오신 아름다운 꽃, 행복의 꽃을 더 활짝 피워주신 **김정은**동지》라는 문맥을 보아야 비로소 여기서 쓰인 《자라나는 우리 혁명의 새 세대》라는 진짜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상의 단위인 문장들의 모임속에서 파악되는 의미는 사전에 올릴 수 있는 독자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없다. 때문에 여기에서 립시로 형성된 의미는 결코 사전에 오르지 못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 어느 사전에서도 올림말 《꽃》의 뜻풀이에 《자라나는 새 세대》를 가리킨다는 뜻풀이를 하지 않았다.

물론 《③〈귀중한것이거나 아름답고 훌륭한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Ⅱ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다.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D 대중의 인기와 사랑에 받들리어있는 너자를 비겨 이르는 말. Ⅲ통일의 꽃. |영희는 우리 작업반의 꽃이야.》(《조선말대사전》 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와 같이 일부 경우 《너자》를 가리키는 의미를 사전에 올렸으나 아직은 《자라나는 새 세대》를 가리키는 의미는 사전에 올리지 않았다.

다의어는 또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뜻들사이에 서로 의미적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의미적연관성이 없다면 그 단어를 다의어로 볼 수 없고 다만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할것이다.

실례를 들어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81.)에 오른 《눈물¹》과 《눈물²》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눈물¹: 사람이나 짐승의 눈에서 생리적으로 흘러나오는 물

눈물²: 눈이 녹은 물 (《눈》-공중에 있는 물기가 얼어서 땅우로 내리는 흰 솜모양의 물질)

《눈물¹》과 《눈물²》사이에는 의미적연관성이 없다. 《눈물¹》과 《눈물²》는 다같이 《물》이기는 하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르다. 즉 원천에서 차이가 있다.

원천에서의 차이는 본질적차이를 낳게 된다. 《눈물¹》에서 《물》은 생물체의 감각기관의 하나인 《눈》에서, 《눈물²》에서 《물》은 겨울에 자연적으로 내리는 《눈》에서 나오는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 두 의미에는 연관성이 없는것이다. 이럴 때는 《눈물》이라는 단어를 다의어로 볼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로 보고 사전에 올린다.

이와 같이 다의어로 되자면 우선 같은 시기에 사회성원들속에서 공통적으로 리해되어 사용되는 여러뜻을 가진 단어이어야 하며 또한 여러뜻들사이에 의미적연관성이 존재하면 서도 자기의 독자적의미가 있어야 한다.

2.3.2. 다의어형성요인에 대한 일반적리해

다의어가 생기게 되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볼 수 있다.

우선 언어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작용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모든 대상, 현상들을 정확히 표현할수 있는 어휘를 요구한다. 이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은 새로운 어휘를 만들기도 하고 이미 있던 어휘를 리용하기도 한다.

단어 《꽃봉오리》는 원래 《식물의 하나인 꽃의 망울》을 이르는 말로만 쓰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어린 세대》로도 쓰이고있다.

실례를 들어 《꽃봉오리는 꽃이 피어나기 전의 상태이다. 꽃봉오리단계를 거쳐야 꽃이 핀다.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앞으로 훌륭한 혁명가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적연관성으로 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는 〈꽃봉오리〉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꽃봉오리》는 이미 있던 꽃망울로서의 《꽃봉오리》를 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것이다.

이와 같이 다의어는 대상,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안목이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결과 그 언어표현도 섬세하고 풍부하게 되면서 생기게 된다.

인간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창조력도 발전하므로 다의어가 생기는 요인을 언어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담당자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밝히는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적극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다의어가 생긴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인식활동의 합법칙적과정과 관련된다. 다시말하여 인간은 세계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물, 현상들을 호상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언어표현에 반영한다.

두 대상, 현상사이의 유사성, 린접성에 기초하여 다의어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사회생활과정에서 인간은 어느 한 대상과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과의 비교속에서 다의어를 만들게 된다. 만들어진 단어들은 처음에는 그리 널리 쓰이지 않다가 오래동안 인민들의 언어생활속에서 쓰이면서 그대로 굳어지고 인식되어 다의어로 된다.

실례를 들어 《머리》의 본뜻인 《사람의 목우의 뇌수가 들어있는 부분》으로부터 문학적 비유에 의한 《산의 머리》가 나옴으로써 다같이 《꼭대기》라는 의미적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나중에는 단어 《머리》가 여러개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다의어는 언어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담당자인 사람들의 창조적의식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사회의 발전이다.

사회제도가 바뀌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생활이 해당 제도의 성격에 맞게 변화되면서 그것을 반영하는 어휘는 그 뜻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질수 있고 중성적인 의미로부터 긍정적인 의미로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부터 긍정적인 의미로,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변하게 된다.

실례를 들어 《일군》은 옛날에는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로동을 천시하던 착취사회의 본성을 반영하여 일하는 사람을 몹시도 천하게 여기는 말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값높은 부름으로 쓰이고있다. 이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던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것으로 변하였고 《실제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되어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또한 언어자체의 특성이다.

언어는 자의성을 가진다. 실례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먹는 과일의 한가지로서 사과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다. 그런데 이 의미와 사과라는 대상을 이르는 《사과》라는 언어형식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다. 바로 이것이 자의성이다.

언어형식과 의미사이의 관계가 자의성을 띠는것으로 하여 다의어가 만들어진다.

만일 내용과 형식사이에 자의성이 없고 필연적인 련관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 현상에는 꼭 하나의 언어형식이 대응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언어형식 즉 하나의 언어만이 존재하게 될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언어의 의미와 언어형식사이에 필연적인 련관이 없기때문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개별적인 민족어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민족어들의 민족적특성으로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다른 한편 언어의 의미와 언어형식사이에 필연적인 련관이 존재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언어생활이 편리하게 될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불편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현상들은 서로 류사한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물, 현상들에 다 각이한 이름을 부여한다면 단어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현상의 수만큼 많아질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언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데 그리고 그 활용에 대단한 《부담》을 주게 될것이며 《불편》을 느끼게 할것이다. 이런데로부터 다의어가 생겨나는것은 언어발전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다의어가 생기는 요인은 크게 언어의 창조자, 발전의 담당자인 사람들의 적극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한 주체적요인과 사회적이며 언어내적인 객관적요인으로 갈라볼수 있다.

2.4.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을 통하여 본 다의어형성의 원리

다의어의 형성원리는 사실상 해당 단어가 다의어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인가 하는것을 확정하는것을 통하여 밝힐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내용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개의 의미내용을 가지는 경우 그 여러 의미내용들사이에 련관성이 인식되면 다의어로 본다는것이며 단어의 형식면은 동일한데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내용들사이에 아무런 련관성이 인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동음이의어로 본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론한 거의 선행연구들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문제는 어떤 단어들의 경우에는 그 련관성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희박하여 련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동사 《미루다》의 경우 첫째 의미는 《(정한 날자보다) 뒤로 물리는것으로서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 <비가 와서 경기날자를 미루다.>》로, 둘째 의미는 《남에게 넘기는것으로서 <책임을 미루다.>, <그는 언제나 결함을 자기에게서 찾고 동무들에게 성과를 미루었다.>》로, 셋째 의미는 《(주로 <로>, <으로>의 다음에 <미루어>의 형으로 쓰이어) 이미 안것을 가지고 다른것을 해야리거나 짐작한다는것으로서 <한가지 일로 미루어 열가지를 해야릴수 있다.>,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벌어진 사태에 대하여 알수 있었다.>》로, 넷째 의미는 《미리 앞질러 해야린다는것으로서 <여름에 겨울날 일을 미루어 생각하다.>, <미루어 짐

작하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의미와 둘째 의미사이에는 《날자나 책임을 다음으로 넘긴다.》는 련관성이 있고 셋째 의미와 넷째 의미와 같이 《헤아리다》라는 예상의 측면에서 련관성이 있으나 첫째 의미와 둘째 의미 대 셋째 의미와 넷째 의미사이에는 련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즉 《넘기다》와 《헤아리다》사이의 련관관계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루다》의 경우 첫째 의미와 둘째 의미사이에는 다의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으나 셋째 의미와 넷째 의미는 다의어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첫째 의미나 둘째 의미와는 련관이 없는 동음이의어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이 의미들사이에는 보다 높은 질서에서 의미적공통점이 느껴진다. 그것은 《넘기다》의 원형 《넘다》에 다음과 같은 의미적인 특징이 있기때문이다. 단어 《넘다》에는 일정한 기준을 전제로 한계가 벗어난다는 의미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은 《미루다》의 셋째 의미나 넷째 의미에 있는 《무엇을 전제로》의 의미적인 특징과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의미적인 공통점으로 하여 이 네개의 의미에 련관성이 보장되면서 단어 《미루다》는 네개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파생된 의미들사이의 련관성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사이의 정확한 분류의 기준설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대체로 한개의 단어에서부터 뜻이 갈라져나온 두개의 단어가 어음구성은 같지만 그 뜻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어들을 두개의 동음이의어로 볼수 있다고 하는것이다. 즉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 단어가 나타내는 현상들사이의 내용적련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단어의 다의성으로 볼수 있으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이미 동음이의어로 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느껴지는 정도의 언어학적인 기준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다시말하면 단어의 뜻들사이에 그것들을 련결하는 의미상의 실마리가 있으며 그 뜻들을 공통적인 뜻같은말로 바꾸어놓을수 있는 경우에는 이 뜻들이 단어의 다의성의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으나 뜻의 측면에서 접촉점이 없을 때에는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어느것이 접촉점이고 실마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

한편으로는 단어의 뜻이 나타내는 현실세계의 대상, 현상의 객관적차이 또는 단어가 그 뜻에 따라 달리하는 형태론적, 문장론적, 성구론적특성들의 차이, 구체적인 민족어들에서 단어결합의 가능성속에서 나타나는 민족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어의 다의성과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단어결합의 가능성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한 단어의 다의성으로 보아야 할것인가 또는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적요소가 적지 않게 작용할수 있고 또한 사전을 만들 때 사전편찬자에 따라 그 해결을 달리 볼수 있기때문에 이를 가르는 객관적기준을 정확히 찾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그 기준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제일 앞선 견해가 바로 《하나의 문맥, 일관된 문맥》, 《뜻의 자립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하나의 문맥, 일관된 문맥》, 《뜻의 자립성에 대한 평가》의 객관적인 언어적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제기하지 못하였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문제를 언어학적문제에 접근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동사의 경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은 우선 동사자체의 의미와 그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와의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다.

동사인 《까다》의 경우에 이 동사는 의미상의 련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개의 의미를 가지는 동음이의어로 구성되어있다. 즉 동사 《까다¹》은 《살이 빠지고 여위여지다.》를, 동사 《까다²》는 《입과 결합하여 몹시 야살스럽고 재잘거리다.》를 의미하였으며 동사 《까다³》은 다의어로서 여러 뜻을 가지고있다.

여기서 《까다¹》과 《까다²》를 동음이의어로 본것은 《몸이 까다》와 《입이 까다》를 통해서 《까다》라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다른데도 있지만 그 근처에는 《까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대상의 차이에도 있다. 그것은 바로 《몸》과 《입》이 서로 다른것이기때문이다. 말하자면 《몸》은 전체로서의 사람의 신체전반을 나타내고 《입》은 그 한부분을 나타낸것이다. 이런데로부터 의미가 달라져 《까다》라는 동사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동음이의어로 되는것이다.

결국 동사가 다의어로 되는가 아니면 동음이의어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의 련관이 없는데도 있지만 그 련관이 없다고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 동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때문에 해당 동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가 하는것은 그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내용이 서로 련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된다.

동사 《찌다⁴》는 네개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로 되어있다. 첫번째의 의미는 《배게 난것을 성기게 베여내다.》라는것으로서 《참대를 찌다.》의 실례문을, 두번째의 의미는 《나무나 풀을 낫 같은것으로 베여내다.》라는것으로서 《가시나무를 찌다.》의 실례문을, 세번째의 의미는 《모판에서 모를 한모숨씩 뽑아내다.》라는것으로서 《벼모를 찌다.》의 실례문을, 네번째의 의미는 《열매를 따다.》라는것으로서 《강냉이이삭을 찌다.》의 실례문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동사 《찌다》와 결합한 명사들은 《참대, 가시나무, 벼모, 강냉이이삭》으로서 다같이 《식물》이라는 옷자리단어를 제시할수 있는 호상 련관성을 가진 명사들이다.

이것을 보면 해당 동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해당 동사를 다의어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인가 하는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사의 경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은 또한 해당 동사와 결합한 명사와의 총체적인 의미가 서로 련관성을 가지는가 안가지는가 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해당 동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다의어와 동음이의어가 갈라지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해당 동사와 결합한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표현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에도 중요한 련관이 있다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몸이 까다.》에서는 몸의 살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입이 까다.》에서는 입의 살이 내린다는 의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입으로 말만 짹짹하며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것으로 하여 두 의미사이에는 그 어떤 련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의미는 서로 다른 의미이며 이때 동사 《까다》는 동음이의어로 되는것이다. 때문에 동음이의어 《까다³》의 기동뜻 I의 세번째의 의미가 《(눈까풀을) 벌리고 눈을 크게 부릅뜨다.》인데 이것과 동음이의어 《까다²》의 의미 즉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하

다.》와 서로 공통점이 있다. 즉 《눈까풀을 벌리든 입을 벌리든》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이 《벌리다》를 중심으로 하여 존재한다. 하지만 《눈까풀을 까다.》라는 표현과 《입이 까다.》라는 이 표현들의 각각의 총체적인 의미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것으로 하여 동음이의어로 되는것이다.

또 다른 실례로 동사 《까다³》의 첫번째의 의미는 《겉에 싸고있는것을 벗기다.》이고 두번째의 의미는 《알이 새끼로 되다.》인데 이 두개의 의미가 서로 련관성을 보장하고있는것은 다같이 《무엇을 싸고있던것을 벗기고 나오다.》라는 총체적인 의미상의 공통점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의미는 서로 련관성이 보장되고있기때문에 이 경우의 동사 《까다³》을 다의어로 보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해당 동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한 후의 그 표현의 총체적인 의미내용의 련관성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동사 《심다》는 《조를 심다, 강냉이를 심다, 콩을 심다, 팔을 심다, 오이를 심다, 무우를 심다, 배추를 심다》의 경우에 《조, 강냉이, 콩, 팔, 오이, 무우, 배추》라는 명사들과 결합을 하는데 이 명사들은 다같이 《곡식, 남새》라는 공통된 옷자리단어를 제시할수 있는 명사들이다. 또한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다, 혁명의 진리를 심어주다, 사회주의사상을 심어주다.》의 경우 《정신, 진리, 사상》이라는 명사들은 다같이 《추상적사유현상》이라는 공통된 옷자리단어를 제시할수 있는 명사들이다. 여기에서 《조를 심다, 강냉이를 심다, 콩을 심다, 팔을 심다, 오이를 심다, 무우를 심다, 배추를 심다》나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다, 혁명의 진리를 심어주다, 사회주의사상을 심어주다.》라는 표현의 총체적인 의미내용이 《무엇을 어디에 넣다》로서 련관성을 유지하고있으므로 동사 《심다》는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 《심다》의 세번째의 의미도 《인체에 다른 사람의 살이나 뼈를 박아넣다.》, 네번째의 의미도 《무엇을 일정한 틀이나 대상에 꽂아넣다.》로서 다같이 《넣다》의 총체적인 의미내용을 가지고있으므로 역시 이때의 의미들은 동사 《심다》의 첫번째의 의미, 두번째의 의미와 련관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동사 《심다》는 이러한 의미들을 다 포괄하는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이것을 의미론에서 적지 않게 논의되고있는 의미마당론과 결부시켜본다면 만일 해당 동사가 하나의 의미마당에 놓이는 명사들과 결합을 할 때에는 동사의 의미의 전의현상 즉 다의어가 생기는 현상이 대체로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례로 든 《벼, 강냉이, 조, 팔, 콩, 밀》 등의 명사들은 《곡식》이라는 하나의 의미마당에 놓이는 명사들이다. 만일 이러한 명사들과 동사 《사다》가 결합된다면 이때 동사의 의미에서는 전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벼를 사다, 강냉이를 사다, 조를 사다, 팔을 사다, 콩을 사다, 밀을 사다》의 단어결합에서 동사 《사다》의 전의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값을 치러주고 해당하는 물건을 제것으로 받다.》라는 의미하나로 묶이워진다.

그러나 해당 동사가 서로 다른 의미마당에 놓이는 명사들과 결합할 때에는 대체로 의미의 전의현상 즉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동사 《내리다》를 보면 하나의 의미마당에 놓이는 명사들 《비, 이슬, 서리, 눈》 등과 결합하면 의미의 전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의미로 표현되지만 다른 의미마당에 놓이는 명사 《온도》와 결합하면 의미의 전의현상이 일어나 다의어가 생겨나고 또 다른 의미마당에 놓이는 명사 《법령, 지시》 등과 결합하면 의미의 전의현상이 일어나 또 다

른 다의어가 생겨나게 된다.

해당 동사가 다른 명사와의 결합후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의미내용의 련관성이 보장 될 때 그것을 일명 《공통의미》라고 명명한다. 그런즉 해당 동사가 다의어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공통의미》를 가지고있는가 아니면 가지고있지 못하는가에 따라 결정할수 있다.

또 다른 실례로 동사 《찌다¹》의 경우 첫번째의 의미는 《몸에 살이 많이 오르다.》이고 두번째의 의미는 《물건에 때나 먼지 같은것이 찌들어 불다.》인데 이 두개의 총체적인 의미가 서로 련관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이 동사에 동일한 성질을 가진 명사가 결합해서가 아니다. 첫번째는 명사 《살》이고 두번째는 명사 《때》이다. 《살》과 《때》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이 두 의미가 서로 련관성을 가지는것은 《살이 찌다.》와 《때나 먼지가 찌다.》에서 이 두 표현의 의미가 서로 《그 무엇인가가 더 불다.》라는 《공통의미》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두개의 언어표현의 총체적인 의미내용이 공통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설명한다면 그 결합의 총적의미가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동음이의어로 볼수 있는 기준으로 된다.

동사 《찌다¹》과 《찌다²》에서 《찌다²》의 경우는 ① 밀물이 바다쪽으로 나간다. ② 고여있거나 들어있는 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것으로서 총체적인 의미는 《줄다》인것만큼 《찌다¹》의 《더 불다》와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동음이의어로 보게 된다.

동사의 경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은 또한 해당 동사의 문법적특징에 있다고 볼수 있다.

해당 동사의 문법적특징은 어휘적의미나 기타의 성질이 아무리 류사하다고 하여도 해당 동사를 서로 의미적련관이 존재하지 않는 동음이의어로 보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더우기 조선어가 정연한 문법적특징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동사 《찌다》의 경우 동사 《찌다²》와 《찌다⁴》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어휘적의미의 련관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동사 《찌다²》의 의미가 두개의 의미를 가지고있는데 그가운데 두번째의 의미는 《줄어들거나 없어지다.》로서 동사 《찌다⁴》의 네개의 의미와 거의 류사한 성질을 가지고있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즉 동사 《찌다⁴》의 네개의 의미들은 《베다, 뽑다, 따다》로서 다같이 무엇을 베거나 뽑거나 따 결과에 남아있는것이 점점 줄어드는 의미적특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의미들은 동사 《찌다²》의 두번째의 의미와 서로 련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것은 동사 《찌다²》와 동사 《찌다⁴》의 문법적특징이 차이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동사 《찌다²》는 자동사로서 《물이 찌다, 밀물이 찌다》와 같이 주격토를 요구하지만 동사 《찌다⁴》는 타동사로서 《참대를 찌다, 나무를 찌다, 풀을 찌다, 벼모를 찌다, 강냉이이삭을 찌다》와 같이 대격토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것을 다의어로 보지 않고 동음이의어로 보는것이다. 이것은 해당 동사를 다의어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인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해당 동사의 문법적특징과도 련관되어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서도 《참대를 찌다, 나무를 찌다, 풀을 찌다, 벼모를 찌다, 강냉이이삭을 찌다》라는 단어결합의 총체적인 의미내용이 《무엇을 의도적으로 거두다.》이고 《물이 찌다, 밀물이 찌다》의 총체적인 의미내용이 《무엇이 줄어들

다.》와 차이가 존재하고있는것은 전제로 되고있다. 순수 문법적특징으로써 다의어와 동음이의어가 갈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법적특징도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하나의 요소로는 작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사의 경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은 끝으로 해당 동사들의 《공통의미》의 한계를 2차적인 옷자리단어까지로 보는것이다.

조선어의 동사들의 의미적인 련관관계를 따져보면 그 한계문제가 중요하다는것을 곧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매 동사들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보다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의미들이 있기때문이다.

조선어의 매 동사들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추상하고 또 추상하고, 일반화하고 또 일반화하여 계속 나간다면 나중에는 가장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의미 즉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라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가령 동사 《읽다》도 《움직임》이요, 동사 《싸우다》도 《움직임》이요, 동사 《갈다》도 《움직임》으로서 사실상 《움직임》이 없는 동사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사들사이의 의미적공통점을 논의한다면 그 어느 동사일지라도 다 다의어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다의어요, 동음이의어요 하는것은 이런 식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적용하여 정한것인데 이 글에서는 그 한계를 그 동사의 의미로부터 2차적으로 선택되는 의미들사이에 련관이 보장되는것으로 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례를 들어 동사 《찌다⁴》의 여러 의미들로부터 1차적으로 생겨나는 의미가 바로 《베다, 뽑다, 따다》이다. 이로부터 2차적으로 선택되는 의미는 《무엇을 취하다》로 된다. 더 나아가서 그 무엇을 베거나 뽑거나 따거나 하면 원래 있던것은 줄어드는 성질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3차적으로 선택되는 의미는 《줄어들다》이다. 이렇게 3차적으로 확대하면 결국은 동사 《찌다²》의 두번째의 의미인 《줄어들다》와 동일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의미적련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동사 《찌다²》가 동사 《찌다⁴》와 의미적련관성을 가지는 다의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것은 해당 동사들이 다의어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인가 하는 기준을 바로 해당 동사의의미의 2차적인 선택까지를 한계로 하는것이 옳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사의 경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을 통하여 본 다의어의 형성원리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동사자체의 의미와 그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와의 결합관계, 해당 동사와 결합한 명사와의 총체적인 의미가 서로 련관성을 가지는가 안가지는가 하는것, 해당 동사의 문법적특징, 해당 동사들의 《공통의미》의 한계를 2차적인 옷자리단어까지로 보는것을 총괄하여 《2차적인 옷자리단어의 변화까지의 공통의미보존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2.5. 조선어 동사체계내에서의 다의어의 분석

조선어 동사체계내에서는 일부 동사에 한하여 다의어로 보겠는가 아니면 동음이의어로 보겠는가 하는 문제가 부단히 변화되어왔다.

단어의 뜻풀이를 하는 과정에 동음이의어로 올라있던 단어가 후에는 다의어로 되고 다

의어로 되었던 단어가 동음이의어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동음이의어가 더 생기기도 하고 다의어의 뜻이 더욱 보충되기도 하면서 고정불변하지 않고 부단히 변하여왔다. 이러한 현상이 제일 뚜렷한것이 바로 조선어의 동사체제이다.

동사체제안에서 다의어를 분석할 때 무엇보다먼저 어휘적특징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것은 동사 《끼다》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동사 《끼다》를 4개의 동음이의어로 보았다면 1992년부터 오늘까지는 5개 특히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에서는 경상남도의 방언으로서 《꾸다》의 뜻을 나타내는 《끼다⁶》까지를 포함한 6개로 보았다.

동사 《끼다》를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 1962.)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에서 밝힌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사 《끼다¹》에서 다의어의 의미를 더 세분화하였다.

《조선말사전》에서는 동사 《끼다¹》을 4개의 다의어로 보았으나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에서는 5개의 다의어로 보았다.

그 차이는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에서는 《조선말사전》에서 올린 다의어들을 다 포괄하면서 《물의 겉면이 살짝 얼거나 서리나 성에가 생겨 내뿜다.》의 의미를 더 첨부하여 동사 《끼다¹》의 의미를 더 세분화하였다. 즉 《연기, 김, 구름, 안개》, 《먼지, 때》, 《이끼, 녹》, 《독살》의 의미영역안에 《살얼음》이 빠져있기때문에 그것을 더 보충한것이다. 여기에서 《연기, 김, 구름, 안개》는 다 《기체》의 공통의미를, 《먼지, 때》는 《어지러움, 고체》의 공통의미를, 《이끼, 녹》은 《습기, 변화》의 공통의미를 가지고있으며 《독살》은 《심리》의 의미를 가지고 앞의 의미내용과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설정되었다. 그러나 《살얼음》의 경우는 앞의 의미내용과는 다른 자기의 뚜렷한 의미를 가진다. 즉 《고체》의 의미를 가진다. 물론 《먼지, 때》도 《고체》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살얼음》은 고체는 고체이지만 같은 《고체》인 《먼지, 때》와는 성질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때문에 따로 설정한것은 응당한것이다. 다시말하여 공통의미에서 서로 다르다면 이때는 독자적인 동음이의어로나 혹은 독자적인 다의어로 평가하고 따로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2차적인 옷자리단어의 변화까지의 공통의미》의 차이, 이것은 해당 단어를 다의어로 보겠는가 아니면 동음이의어로 보겠는가 하는 기준으로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의미를 가지는가 안가지를 판별하는 객관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것은 바로 해당 동사와 결합하는 앞의 단어요소에 있다. 즉 바로 동사 《끼다¹》의 앞에 놓인 《살얼음》이 바로 그 객관적인 요소인것이다.

동사 《끼다³》의 뜻풀이를 보아도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수 있다.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 1962.)에서는 동사 《끼다³》을 5개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로 보았으나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에서는 동사 《끼다³》을 7개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로 보았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에서는 《조선말사전》에서 서술한 동사 《끼다³》의 의미를 다 포괄하면서도 이외에 뜻풀이를 더 세분화하였으며 새로운 의미들을 더 선정하였다. 즉 《어떤 시기나 절기를 가까이 두다.》의 의미를 더 선정하였다. 즉 《동지를 끼고 며칠동안에 걸쳐 찬바람이 몹시 불어때리었다.》의 실례문을 주었는데 여기서 《동지를 끼고》라는 표현속의 동사 《끼다》는 분명 《동지를 계기로》라는 일종의 《계기성》의 성질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분명 동사 《끼다》가 가지고있는 의미인것으로 하여 사전에 당당히 올릴수 있는 의미이다.

그러면 왜 이 의미를 동사 《끼다³》의 다의어로 보았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동사 《끼다³》의 첫번째의 의미로부터 세번째의 의미까지는 《몸, 가깝게》라는 《공통의미》를 가지고있으나 《동지를 끼고》는 《몸》이라는 《공통의미》는 없으나 《가깝게》라는 《공통의미》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대상지시적성격에서 사람의 《몸》이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시기》나 《절기》라는 《계절적특성》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가지기때문에 독자적인 뜻으로 인정을 받고 더 파생되어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 독자성은 《공통의미》를 가지는 한계내에서의 독자성이다. 따라서 다의어안에서의 파생이며 동음이의어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의 《공통의미》는 무엇에 의해 나타나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겨드랑, 손가락, 다리》 등의 옷자리단어 《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 다의어로 되며 그리고 《몸》과 《계절》은 동등한 옷자리단어를 가지지 않으나 《가깝게》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여 다의어로 된다. 여기서 《옷자리단어》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를 말한다. 실례를 들어 《사과, 복숭아, 배, 살구, 추리》 등의 옷자리단어는 《과일》이다.

다음으로 동사 《끼다》의 동음이의어를 두개 더 설정하였다.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 1962.)에서는 동사 《끼다》의 동음이의어를 4개로 보았으나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에서는 6개로 보았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에서는 《조선말사전》에서 올린 동음이의어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경상남도의 방언인 《끼다(남의 돈을 끼다 즉 꾸다)》와 이외에도 《벌레가 뭍이다》의 의미를 가진 《끼다》를 더 설정하였다.

이렇게 《무엇이 많이 성하거나 모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를 동음이의어로서 취급할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동사 《끼다⁵》는 《(벌레나 짐승 같은것이)많이 성하다./ 진디물이 끼다, 늦벌레가 끼다.》라고 뜻풀이를 하고있다. 동사 《끼다¹》은 주로 《내굴, 안개, 구름, 김, 서리, 성에, 노여움, 이끼, 녹, 먼지, 때, 눈곱》과 관련되어 《무엇이 생기다》의 의미를, 동사 《끼다³》은 주로 《겨드랑이, 몸, 팔, 다리, 손가락, 결, 절기, 힘》과 관련되어 《무엇과 가깝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 《끼다⁵》와 관련된 《짐승, 벌레》는 동사 《끼다¹》과 관련된 명사 《내굴, 안개, 구름, 김, 서리, 성에, 노여움, 이끼, 녹, 먼지, 때, 눈곱》과는 완전히 다른 옷자리단어로서 명사와의 결합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있다. 한편 동사 《끼다⁵》는 《무엇이 생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끼다¹》과 관련이 없는 《무엇이 많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물론 동사 《끼다⁵》는 《무엇이 생기다》라는 의미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는것은 아니다. 동사 《끼다⁵》는 《무엇이 생기다》라는 의미보다 《무엇이 많아지다》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것으로 하여 동사 《끼다》의 부류에서 다의어로서 볼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로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진다.

결국 《끼다⁵》는 새로운 단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것은 《끼다⁵》의 의미가 원래 있던 《끼다¹》부터 《끼다⁴》까지의 의미들중 어느 하나가 따로 떨어져나온 경우가 아니기때문이다.

이렇게 다의어의 관계에서는 의미이동이 없고 새로 뜻이 부가되어 그 의미의 개수가 늘어난 것이 있다.

《끼다¹》에서는 ②의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보충되었고 《끼다³》에서는 ⑤, ⑥의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

여기서 새로 생겨난 《끼다⁵》와 《끼다¹》사이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벌레나 짐승같은 것이 성하는 것 역시 벌레들이 짐승들의 몸에 엉겨붙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그것은 《끼다¹》의 의미적 연관성의 기준에 맞게 된다. 그런데 《끼다⁵》의 의미내용은 너무도 뚜렷하다. 즉 《몸에 엉겨붙다》는 의미보다는 《많다》의 의미내용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생기다》를 중심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많다》를 중심으로 보겠는가에 따라 동음이의어로 보게 되는가 아니면 다의어로 보게 되는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이 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인 데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2차적인 성격을 가지는 옷자리단어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기다》라는 것은 2차적인 옷자리단어인 것으로 하여 《생기다》를 중심으로 묶이워진 뜻들은 다의어로 처리하여 올림말의 뜻풀이로 제시할 수 있으며 《많다》는 것은 그 무엇이 생긴 다음의 일로서의 3차적인 옷자리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많다》의 의미를 가지는 《벌레가 끼다》의 경우의 《끼다》는 《끼다¹》의 다의어가 아니라 《끼다⁵》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동사체제안에서 다의어를 분석할 때 그의 문법적특징도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

동사는 움직임을 미치는 대상을 요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한다.

자동사란 움직임을 미치는 대상을 요구하지 않는 동사이며 타동사란 움직임을 미치는 대상 즉 문장에서 직접보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동사이다.

실례를 들어 동사 《치다》는 6개의 동음이의어로 갈라볼 수 있으며 《치다²》, 《치다³》, 《치다⁴》, 《치다⁵》는 그안에 다시금 여러개의 의미를 가진 다의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동사 《치다²》는 《바람이 치다, 파도가 치다, 서리가 치다, 찬바람이 치다》등과 같이 자동사로도 쓰이고 《떡을 치다, 악기를 치다, 적을 치다, 탁구를 치다》등과 같이 타동사로도 쓰이고 있다.

자동사는 대격로 《을, 를》이 붙은 직접보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의 실례들인 《물장구를 치다, 허리를 치는 강물, 찰떡을 치다》에서 《치다》는 《물장구를, 허리를, 찰떡을》이라는 직접보어를 요구하지만 《파도가 치다, 번개가 치다》에서 《치다》는 직접보어가 쓰이지 않고도 자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사이다.

동사 《치다²》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또 타동사로도 쓰이며 동사 《치다³》은 전부 타동사로 쓰인다.

동사 《치다²》와 동사 《치다³》이 동음이의어로 되는 것은 물론 의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만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는 문법적특징도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바람이 치다, 파도가 치다, 서리가 치다》등과 《휘장을 치다, 그물을 치다, 줄을 치다, 병풍을 치다, 포장을 치다》등을 비교해보면 의미적인 차이가 생겨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문법적특징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사 《치다》가 자동사로 쓰이었는데가 아니면 타동사로 쓰이었는데가 하는 것은 그 동사의 의미가 형성되기 위한 하

나의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만일 동사 《치다》가 타동사로 될 때에는 그 《치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 예상》되며 그런것으로 하여 동사 《치다》의 의미형성에서 벌써 일정한 조건이 조성된다.

그러나 동사 《치다》가 자동사로 쓰일 때에는 그 《치는 행동의 주체가 예상》되며 그런것으로 하여 벌써 타동사로서의 동사 《치다》와의 의미적차이를 인식하게 하여준다.

이것은 해당한 동사의 문법적특징이 해당 동사의 의미를 인식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법적특징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여도 다의어인가 아니면 동음이의어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해당한 단어의 의미문제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타동사로서의 《치다²》는 36개의 의미를, 타동사 《치다³》은 8개의 의미를, 타동사 《치다⁴》는 4개의 의미를, 타동사 《치다⁵》는 5개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로 각각 처리하였다.

총체적으로는 타동사 《치다》의 《치다²》, 《치다³》, 《치다⁴》, 《치다⁵》를 동음이의어들로 처리하였다.

소리는 같고 타동사체계안에 있는 동사들인데 동음이의어로 구분되는 리유는 바로 이 단어들사이의 의미적연관성이 없기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사 《치다²》, 《치다³》, 《치다⁴》, 《치다⁵》는 다 각각 다의어들인데 그 다의적인 의미를 묶어주는 옷자리단어들이 서로 다르기때문인것이다. 바로 상위의 의미들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그것들은 각각의 동음이의어로 처리되는것이다.

의미적연관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이 문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인것만큼 이 문제는 단어의 올림말선정에서 중요하게 나선다.

동사 《치다²》는 의미적연관성을 두 물체가 맞부딪치는데 두었다면 《치다³》에서는 둘레를 막는데 그 련관성을 두었다. 즉 《피아노를 치다, 타자를 치다, 떡을 치다, 종을 치다》 등은 《치다²》에 해당한 실례들이며 《휘장을 치다》, 《그물을 치다》, 《병풍을 치다》 등은 《치다³》에 해당한 실례들이다.

동사 《치다⁴》에서는 무엇인가를 옮기거나 없애는것을 의미적연관성으로 보았다면 《치다⁵》에서는 새로 생기거나 자래우는것을 의미적연관성으로 보았다.

《상을 치다》에서는 상에 있는 먼지나 오물을 행주, 걸레 같은것으로 닦아버린다는 의미이므로 먼지나 오물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상에서 없앤다는 의미로 쓰이였으므로 동사 《치다⁴》에 해당된다.

《양을 치다, 새끼를 치다》에서는 양을 기른다는 의미로, 새끼를 낳는다는 의미로 쓰이였으므로 동사 《치다⁵》에 해당된다. 즉 이 의미는 두 물체의 맞부딪침이나 둘레를 막는 의미, 그 무엇인가를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곳에서 없앤다는 의미와 명백히 구별되는 의미이다.

이 의미들이 서로 련관성이 없고 독자성이 존재하는것으로 하여 소리는 같고 체계는 타동사체계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떡을 치다, 종을 치다, 피아노를 치다》에서 쓰이는 동사 《치다》는 두 물체의 맞부딪침이라는 의미적연관성이 존재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각각 오늘날 《떡을 치다》는 《만들다》로, 《종을 치다》는 《울리다》로, 《피아노를 치다》는 《연주하다》로 각각 다르게 쓰이는것으로 하여 다의어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같은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관계없이 그것들사이에 의미적연관성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그 존재의 유무에 따라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로 갈라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문법적특징을 소홀히 생각하라는것은 결코 아니다.

우의 분석에서 문제는 타동사인 경우에는 문장성분에서 주로 직접보어로 나타나는 단어나 단어결합의 의미와의 호상관계가 다의어인가 동음이의어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자동사인 경우에는 문장성분에서 주로 주어로 나타나는 단어나 단어결합의 의미와의 호상관계가 그 기준으로 나선다는것이다.

자동사 《치다²》의 경우에 《비바람이 치다.》는 《비바람이 세차게 뿌리다.》의 의미로, 《서리가 치다.》는 《서리가 많이 내리다.》의 의미로, 《물결이 치다.》는 《물결이 설레이거나 움직이다.》의 의미로 쓰이였다. 이런 의미를 선택할수 있는것은 바로 우의 문장들에서 주어로 사용된 단어의미의 특성에 따른다. 즉 《비바람, 서리, 물결》은 다같이 《물》과 관련이 있는 명사들이다. 이렇게 《물》과 련관이 있는 명사들인 《비바람, 서리, 물결》이 동사 《치다》와 결합되면서 서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였다.

명사들과 결합한 상태에서의 동사 《치다》의 의미는 매개의 고유한 의미와 함께 하나의 의미 즉 옷자리단어 《몹시》라는 공통의 의미를 가지기때문에 다의어로 되는것이다.

동사 《뜨다》는 11개의 동음이의어를 가지고있다.

실례를 들어 동사 《뜨다》는 총 11개의 동음이의어들을 가지고있으며 매 동음이의어들마다 또다시 여러개의 공통된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로 구성되어있다.

우의 단어결합들이 동음이의어로 갈라지는것은 서로 공통된 의미내용 즉 옷자리단어가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때문이며 다의어로 갈라볼수 있는것은 그것들이 나타내는 의미의 공통의미를 가지는 옷자리단어가 존재하기때문이다.

우의 단어결합가운데서 《비행기가 뜨다.》와 《고향을 뜨다.》를 보자.

《비행기가 뜨다.》는 《땅우에서 공중으로 오르는 수직적분리》를 의미하며 《고향을 뜨다.》는 《땅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수평적분리》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즉 수평적분리인가 수직적분리인가에 따라 《뜨다¹》과 《뜨다³》으로 갈라진다. 물론 두 단어결합은 다같이 분리라는 큰 범위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평적인가 수직적인가 하는것은 그 의미상 90°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음이의어로 설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지레대로 바위돌을 뜨다.》, 《상대편을 떠서 메꾼지다.》에서 역시 수직적분리로 볼수 있다. 그러나 《비행기가 뜨다.》는 동력을 리용하여 서서히 수직과 수평방향의 합성으로 오르는것을 의미한다면 《뜨다⁶》은 사람이 자체의 힘으로 어렵게 들어올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동사 《뜨다¹》과 동사 《뜨다⁶》이 동음이의어로 처리된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사 《뜨다》의 동음이의어설정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

그것은 동사 《뜨다⁵》의 ⑥과 동사 《뜨다⁸》의 ①사이의 의미적관계문제이다.

동사 《뜨다⁵》의 ⑥의 뜻풀이는 《(수공업적방법으로 종이를) 만들다.》이고 동사 《뜨다⁸》의 ①의 뜻풀이는 《(실이나 털 같은것으로 코를 엮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다.》이다.

여기에서 《(수공업적방법으로 종이를) 만들다.》의 의미는 동사 《뜨다⁵》의 전반적인 다의어

의 뜻풀이의 성격에는 잘 맞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이 의미는 동사 《뜨다⁵》에는 적합치 않다.

동사 《뜨다⁵》는 부분적으로 떼어내거나 갈라낸다는것을 기준으로 다의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동사 《뜨다⁵》의 ⑥의 의미는 《종이를 만들다.》라는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있는 조건에서 2차적인 옷자리단어로는 《만들다》가 적합하다. 그런데 《만들다》라는 2차적인 옷자리단어의 의미를 가진 동사 《뜨다》의 동음이의어로는 동사 《뜨다⁸》이 있다.

동사 《뜨다⁸》의 2차적인 옷자리단어는 《만들다》로서 이것은 동사 《뜨다⁸》의 다의어들의 옷자리단어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동사 《뜨다⁵》의 ⑥은 동사 《뜨다⁸》의 다의어의 하나로 들어갈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물론 동사 《뜨다⁸》의 중요한 의미특징의 하나는 《실 같은것을 리용하여》이다. 따라서 《그물을 뜨다.》, 《종이를 뜨다.》는 다같이 《만들다》라는 옷자리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서 련관성이 존재하나 《뜨다⁸》의 의미적련관성의 기준인 《실 같은것을 리용하여》라는것과 동사 《뜨다⁵》의 ⑥의 《벼짚을 리용하여》는 《실》과 《벼짚》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종이를 뜨다》를 동사 《뜨다⁵》에 소속시키느니 차라리 《뜨다⁸》에 소속시키는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동사 《뜨다⁵》에 속하는 다의어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다같이 《어떤 전체의 가운데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낸다는가 아니면 갈라낸다는가》의 의미가 강한데 《종이를 뜨다》는 《무엇을 떼낸다는가 갈라낸다는가》가 기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다》가 기본으로 되기때문이다. 즉 《종이를 뜨다》나 《그물을 뜨다》의 2차적인 옷자리단어는 《만들다》이기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동사 《뜨다⁵》의 ⑥을 동사 《뜨다⁸》의 ④로 넣는것이 더욱 타당할것이다.

총체적으로 조선어 동사체계에서의 다의어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로, 해당 동사의 의미를 다의어로 볼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는 해당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들이 일정한 의미적인 공통성 즉 하나의 의미마당에 놓이는 특성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동사 《치다³》의 안에 뜻풀이가 되어있는 여러가지의 뜻들이 하나로 묶이워질수 있는 객관적인 요인은 이 동사와 결합하는 앞의 명사들의 의미내용이 하나로 묶이워질수 있다는것이다. 즉 《휘장, 그물, 병풍, 포장, 담》 등의 단어들은 다같이 《그 무엇인가를 휘둘러 막을수 있는 재료》라는 의미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하나의 의미마당에 놓이는 단어들이다. 다시말하여 이 단어들의 의미는 그 무엇인가를 둘러서 《칠수》있는 재료들이다.

둘째로, 해당 동사가 일정한 명사들과 결합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의미내용의 총합이 일정한 옷자리단어가 가지는 의미내용에서의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휘장을 치다, 병풍을 치다, 모기장을 치다, 그물을 치다》 등과 같은 단어결합의 경우에 이 단어결합의 의미내용의 총합이 옷자리단어 《설치하다》에서 일치하기때문에 이때의 이 뜻들은 동사 《치다³》의 다의적인 의미들로 되는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옷자리단어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 그러한 의미는 어떤 동사의 다의적인 의미로서 다의어를 이루는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로 전환될수 있다는것이다.

동사 《치다⁵》의 경우에 다섯번째의 의미인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남을 머물러 묵게 하다.》의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사실 동사 《치다⁶》의 의미인 《그 무엇을 치르거나 꺾다.》의 의미에 보다 더 가깝다. 왜냐하면 동사 《치다⁵》의 첫번째의 의미는 《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까

다.》로서 《그 무엇이 생겨나다.》가 기본적인 의미내용을 이루고있는데 비하여 《손님을 치다.》의 의미내용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기때문이다. 즉 《손님을 치다.》의 옷자리단어의 의미는 《겪다》이지 결코 《생겨나다》가 아니기때문이다.

이 경우에 《손님을 치다》는 동사 《치다⁶》속에 포함되는 동사 《치다⁶》의 다의어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는것이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옷자리단어를 당당히 제시할수 있기때문이다.

3. 결론

이 글에서는 선행한 연구성과들을 종합분석하고 조선어 동사체계에서 다의어를 연구하는 과정에 다의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형성에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다의어형성의 원리적인 문제를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가르는 기준문제와 결부시켜 논의하였다.

다의어문제는 현재 의미론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현시기 사람들의 생활속에 가장 광범히 침투한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언어학분야에서의 자연언어처리문제는 사실상 의미현상의 다의성처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는 다의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언어학의 발전과 언어생활을 개선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보다 과학적인 해답을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다의어, 형성, 원리